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23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23
2020 년 11 월 23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51885492](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51885492)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11 월 23 일

차례

1. [실패한정부와실패한시장]	3
2. [이시국이니까파업이다]	4
3. [그들만을위한공항]	5
4. [더다양한자기결정권을상상하자]	6

얼마나 많은 프로파간다를 통해 인민대중을 속일 것인가? 그 공항을 건설한 뒤에는 또 어떤 협잡질을 통해 공항으로 이윤을 뽑아 먹으면서 인민대중을 기만할 것인가?

우리는 정부, 정치권, 자본이 공항 건설에 있어 일절 개입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공항 건설 부지와 지역 등을 인민이 스스로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 당신들은 좀 ‘짜져’ 있어라. 당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추하다.

[https:// www.seoul.co.kr/ news/ newsView.php?id=20201122500022&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2500022&wlog_tag3=naver)

4. [더 다양한 자기 결정권을 상상하자]

최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는 비혼모의 삶을 결심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다. 일본에서는 가능한 일인 한국에서는 법률이라는 테두리로 인해 불가능한 것에 대한 비판역시 제기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데에 대해 사유리 씨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한동안 한국에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문제가 임신 중절을 가능하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한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여성이 자신의 이후 삶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출산에 관한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더 넓은 주제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 낙태는 돼, 낙태는 안 돼, 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그리고 수세적인 자기 결정권 담론에서 벗어나서 자기 결정권의 다양한 면을 보다 폭넓게, 공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진정한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시선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다양한 자기 결정권, 더 다양한 행복의 모습, 더 다양한 삶의 모양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25548>

1. [실패한 정부와 실패한 시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향하고 있고 우파들은 이를 시장에 억지로 간섭하려 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시장원칙에 따라 개입을 그만두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둘 다 틀렸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과연 대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왔던가? 그들은 입으로만 투기억제를 외쳤을 뿐 다주택, 건물불로소득 등의 규제에 있어 항상 소극적이었으며 반대로 다주택자들을 막는 담시고입대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가며 반대로 투기를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공공주택의 공급은 충분치 않았고 토지, 건물 자본가들은 결국 건들지도 못한 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까지 시도했다. 정부의 실패는 시장 자본을 침범해서가 아닌 그들에게 굴복했기 때문이고 과도한 개입을 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대책조차 못 세웠을 뿐이다.

과연 부동산 정부에 있어 정부에게 걸 수 있는 기대가 있을까? ‘엔겔스가’ 주택문제에 관하여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택의 소유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자 계급이 생존을 위해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은 주택으로의 이주를 항상 강요받는 반면 자본가 계급에 있어 토지와 주택은 그저 또 다른 투기적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국가마저 노동 계급에 자비롭지는 않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시고 국가의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들조차도 주택장사를 하려는 것은 마찬가지다. 주택이 건설이후로 가치가 늘어나는 바가 없음에도 공공임대사업주들은 세입자들에게 매년 인상된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시키고 물가인상을 핑계로 월납임대료를 늘린다. 이는 과세나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중대 타위로는 근절할 수 없는 체제 근본적 문제의 사이클이고, 소유위에 기반한 부르주아 회계 체계 내에서 활동하는 그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노동자 계급의 주거권 문제는 의회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주택의 소유는 그것에 투기를 한 자본가 계급이 아닌 그것을 건설한 노동 계급에 있어야만 하며 더 나아가 산업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 얽매인 노동자들에 있어야만 한다. 부동산 대책은 개입주의나 자유시장 따위가 아닌 노동자 계급에 의한 즉각적인 주거의 사회화, 공공화, 공유화에 달려 있다.

[https:// www.donga.com/ news/ article/ all/20201118/104030924/1](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18/104030924/1)

2. [이시국이니까파업이다]

지난한주는말그대로파업의한주였다. 공공-민간영역, 정규직-비정규직, 업종등을가리지않고하루가 멀다하고새로운파업투쟁이열렸다. 임금인상을요구하는파업도있었고, 제대로된정규직전환을요구하는파업도있었고, 노동조합의교섭권을박탈하는기재부의지침을개선하라는파업도있었고, 임금인상안 0.1%(월급 2,000 원인상) 을받아들고존중을요구하는파업도있었다.

그리고이파업을다루는기사들은대부분“이시국에파업을해야하냐”는논조를보였다. 심지어 < 한겨레 > 마저말이다. 코로나-19 3 차재확산이다. 모두가힘든상황이다. 완성차공장에서파업을하면부품하청업체가힘들고, 학교비정규직이파업을하면아이들이불모로잡히고, 공공부문노동자들이파업을하면너희는내고는안당하지않냐고한다.

하지만, 이모든“이시국”들에정말로묻고싶은것이있다. 대체노동자가투쟁을할수있는“시국”은언제인가? 노동조합은언제나“이시국에”파업하지말라는말을듣는다. 경기가나쁘면 < 고통분담 > 해야하니“이시국에”파업하지말라고한다. 경기가중요면국가의성장을위해 < 대승적으로 > 파업하지말라고한다.

11 월 3 주차다. 이시기는보통노동조합이 1 년의임단협을끝내고, 올라간임금을받으며즐거워하고, 내년을준비해야하는시기다. 하지만 2020 년, 코로나때문에회의가어려워서교섭하지못한다는말을듣고, 코로나때문에경기가어려워서임금을올리지않겠다는말을듣고, 코로나때문에집회도못할텐데파업하려면해보라는말을들어왔기에, 지금“이시국에”투쟁이터져나오는것이다.

“이시국”이고“저시국”이고, 파업을하고싶어서하는노동자는단한명도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은코로나로인한휴업/무급휴직등으로소득이급감한와중에, 수십차례의교섭에도사측은턱도없는임금안을들고나오고, 해고를협박하고, 지침을핑계대며이전합의사항불이행을선언하고, 월급 2,000 원인상안을받아야했다. 이런“시국”이다. “이시국”에, 노동자들이파업투쟁말고또무엇을할수있다는말인가?

우리 < 아나키스트연대 > 는노동자들의직접행동/직접투쟁/파업투쟁을지지한다. 동지들의힘찬파업투쟁으로, 벌써수십년째변함없이“이시국”핑계를대는사용자들에게지금이어느시국인지보여달라.

“노동계급은단순히지시받은일을하는것을멈추고, 모두가하기로결정한일을하기만하면된다. 이렇게함으로써노동계급은그적대자들을모든권력으로부터몰아내고, 권력을얻을수있을것이다.”

- < 원빅유니온 >, 세계산업노동자연맹

GM: [https:// news.naver.com/ main/ read.nhn?mode=LPOD&mid=sec&oid=028&aid=000252117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8&aid=0002521171)

기아자동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20268>

한국수력원자력: [https:// news.naver.com/ main/ 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2021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20211)

학교비정규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20211>

철도비정규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49950>

국립중앙박물관: [http:// worknworld.kctu.org/ news/ articleView.html?idxno=402079](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079)

3. [그들만을위한공항]

요근래정치권에서는가덕도신공항문제를두고갑론을박이오가고있다. 특히민주당과국민의힘에서의설전이대단한데, 국민의힘내부에서는부산경남지역의원들과그이외의지역의원들간알력다툼이있다고까지한다. 이걸두고민주당은‘학교학생회정치력’보다도못하다면서비웃음을내보였고말이다. 공항, 분명필요한기반시설이다. 그러나우리는인민을위해사용되어야할기반시설이, 토목자본과자본, 정치권에의해휘둘러지는꼴을우리는보고있다.

국민의힘의처세가부정의하다거니, 가덕도신공항의신자유주의자였던‘노’씨성을가진대통령의유산이라느니, 이걸옥으로사용하니에대해서는중요하지않다. 중요한것은애초에가덕도신공항이건설되는데‘인민의의사’는반영되었느냐가중요하다. 가덕도신공항이건설되고말고에대해서여론조사도나타나고있고하지만, 이는신공항을건설하고자하는부르주아세력과정치세력, 이에반대하는부르주아세력과정치세력에게는중요하지않다. 그들에게는오직의회민주주의라는탈을쓴부르주아독재체제아래에서의이윤이최우선이기때문이다.

그사이에서인민들은가면갈수록더더욱그들을혐오하게될수밖에없다. 그들은인민을대변하기위해, 대변한답시고기만적인투표를통해서나마국회로, 그리고고정치권으로움직인자들이다. 그런데정작인민을위한답시고정쟁을해대는, 인민에게가장많은혜택이돌아가야할기반시설을자신들의이윤을위해서굴리는것을보라. 입으로는‘국민’의이익, 지역주민의이익을외치지만결국그들스스로의정당권력, 자본권력에복무하고충성하기위해경쟁을벌이는것이아닌가?

그공항, 당신들을위한것아닌가? 그공항을만드는데있어얼마나많은건설노동자들의임금을착복하고노동을착취할것인가? 그공항을건설하는데있어